

이윤보다는 안전

다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다!



(주)테크팩솔루션은 50년대 국내 최초로 유리병 산업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 유리병 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다. PET, 알루미늄 캔 등 액체제품 포장관련해서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종합포장재 회사인 것. 이런 (주)테크팩솔루션의 발전에는 경기도 이천 대월면에 위치한 이천공장의 역할이 컸다. 이곳은 1980년에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두피스캔(two-piece can)을 생산하기 시작한 곳으로, 현재는 이를 통해 연간 600~7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즉 (주)테크팩솔루션의 주력이다.

이처럼 이천공장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곳 관계자들은 '안전'을 그 이유로 꼽는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재해가 없으니 기계가 멈출 일이 없고, 근로자의 공백이 생기는 일도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다시 말해 안전성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흔들림 없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로 이곳 안전관리자의 실력에 찬사가 나올만한 대목이다.

안전으로 회사의 매출증대까지 일궈내게 만든 (주)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의 김문선 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주)테크팩솔루션 이천공장 김문선 차장

취재·사진 |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다재다능한 멀티 안전맨

대학에서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환경기사로 입사한 김문선 차장은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입사초기부터 사내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로 인해 그는 맡은 바 직무를 넘어 사내 유틸리티까지 관리를 했었다.

처음에는 소방업무가 주어졌고, IMF로 회사가 건축경영에 들어가며 부서통합이 이뤄지자 안전업무도 겸하게 됐다. 과도한 업무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다. 사내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리·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용접이나 절단작업을 배웠다. 맡은 영역이 많다보니 나중에는 토목이나 설계 등에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고 결국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12년만에 회사의 전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혹자는 이런 김문선 차장에게 다양한 일을 하는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겪어 본 사람들은 이에 대해 기우라고 말한다. 다방면에 능한 만큼 안전을 할 때 다각도로 접근해 보다 현명한 개선안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김문선 차장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에겐 항상 '멀티 안전맨'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사람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

2007년은 김문선 차장의 안전인생에 있어 한 획을 그은 해였다. 당시 이곳은 국내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 속해있었는데, 그룹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진행하면서 중장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한 사업의 대가는 혹독했다. 예상도 못했던 중대재해가 속출했던 것.

이에 회사 경영주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내고 싶지는 않다”라며 ‘안전원년’을 선언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안전사업의 핵심은 김문선 차장이었다. 그는 경영주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마음 속에 담고 있던 계획을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그는 무려 2007년도에만 2~3억원의 비용을 들여 800개소의 이상의 안전문제를 개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제서야 실행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사람에 초점을 두는 안전관리

아무리 만능맨이라하지만 처음 안전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환경업무는 설비만 잘 갖추어지면 대부분 자동화로 운영되어 위험함이 없었는데 안전업무는 아무리 설비를 보강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대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술한 시행착오 끝에 그는 설비에만 맞춰져있던 자신의 시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그는 초점을 사람으로 바꿨다. 그러자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또 사람은 기계처럼 늘 꾸준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는 즉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설비를 다루는 체계를 사람중심으로 변경했다.



일예로 (주)테크팩솔루션에 있는 지게차의 경우 시동열쇠는 여러개이다. 지게차를 취급하는 근로자 개개인인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느 근로자가 지게차에 시동열쇠를 꽂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발견되면 안전관리자는 즉시 열쇠를 지게차에서 뽑아 압수하고 해당 근로자를 문책한다.

이외에도 이곳의 기계·설비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런 체계에 따라 이곳 근로자들의 몸에는 어느덧 안전수칙이 배이게 됐다.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안전문화 정착

김문선 차장이 펼친 안전활동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안전가이드라인을 사내 근로자는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준수하게끔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다. 외부인이 생산현장을 보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면 무조건 안전교육을 받게 했다. 이에는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없었다. 그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대동해서라도 꼭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이런 예외 없는 강압조치에 ‘매일 하던 일인데, 아무 일 없었다’라며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던 근로자들도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재만이 두려워 억지로 참여하던 근로자들이 그의 끊임없는 교육에 이제는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김문선 차장은 그동안 안전관리를 펼침에 있어 근로자 모두가 참여토록 노력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주시킴으로써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김문선 차장의 최종 목표는 전 직원들에게 자신이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직원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계획을 이해한 후 활동에 나서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다. 그의 이런 꿈이 하루빨리 실현돼 이곳 사업장이 우리나라 안전사업장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